

중국대학 파견 교환학생 결과보고서

■ 파견대학 정보

대 학 명	저장외국어대학	기숙사비	755,000/한 학기
파견지역	항저우	기숙사비 납부방법	일시불(O) 분할납부() ※분할납부시 납부횟수를 기재
파견기간	2017.09~2018.01	기타비용	2백만원 후반

■ 파견자 정보

성 명		학 과	관광경영
성 별		학 년	3

본인은 순천향대학교 교환학생으로서 상기와 같이 수학하였으며 수학 결과 보고서를 첨부와 같이 제출합니다.

- 첨부 1. 대학 현황 보고서
2. 교환학생 파견 수기

2018. 01. 17.

파견자 : (서 명)

국제교육교류처장 귀하

대학 현황 보고서

■ 수업

※ 교육과정, 수업지도 방식, 지도교수, 수업과제 등 수업관련 세부 내용을 기재해 주세요.

수업은 총 4과목이 있습니다. 종합, 듣기, 말하기, 쓰기입니다. 수업 시간표는 정해져 있으며, 시간에 맞춰 수업을 가시면 됩니다. 수업이 그렇게 타이트하지 않으니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선생님들은 다들 착하시고 열정적입니다. 저장외대가 첫 파견이라 아무 정보도 없이 갔었는데, 걱정과 달리 선생님들께서 잘 해주셨고, 이곳 직원선생님들도 다들 친절하셨습니다.

처음 오티시간에 시험을 봅니다. 시험 점수에 따라 반을 나누는데, 총 3개 반이 있습니다. 기초, 조금, 중급으로 나누는데, 제 생각에는 조금, 중급, 고급이었습니다. 저는 중급에서 수업을 들었습니다. 기초반에는 중국어를 완전 처음 시작하는 친구들이었고, 중급에서는 중국어를 조금 배웠던 친구들이었습니다. 고급은 완전 잘하는 친구들이었습니다. 저는 저의 반 수준에 만족했습니다. 하지만 반이 조금 더 세분화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수준에 따라 나누었을 때 애매하게 걸리는 친구들이 많았습니다.

수업은 재미있습니다. 순천향대학교 GBS를 통해 중국어 수업을 들어봤던 친구들이면 수업방식이 비슷하다고 느낄 겁니다. 저도 GBS를 통해 들었던 중국어 교수님들의 수업방식과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종합' 수업의 경우 매주 단어시험과 작문을 해야 합니다. 힘들 거 같지만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더 중국어 실력을 늘릴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작문을 제출하면 선생님께서 고쳐주셨습니다. '듣기' 수업의 경우 녹음된 파일을 들으며 문제를 함께 풀었습니다. '말하기' 수업의 경우 책에 있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이야기하고, 단어를 가지고 문장을 만듭니다. '쓰기' 수업의 경우 본문 내용을 읽고 선생님께서 질문하시는 내용에 답하고, 작문을 합니다.

시험은 기말고사만 있었습니다. 시험주 전에 일주일 동안 수업 없이 자율적으로 공부합니다. 질문이 있으면 선생님을 찾아가면 됩니다. 시험의 경우 걱정과 달리 난이도가 크게 높지는 않았습니다. 공부한 만큼 나온다는 생각이 듭니다. 단어 많이 외우고, 듣기 계속 들으면서 익숙해지고, 문장배열 공부하면 무리 없이 시험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선생님께서 어떤 형태로 나오는지 말씀해주시니까 참고하여 공부하면 됩니다.

수업 만족도는 최고였습니다. 선생님을 모두 좋아하고, 학교에서 하는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도 많습니다. 참가하면서 중국의 문화 또한 배울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 환경 (위치, 기후, 교통, 주변 편의시설 등)

항저우는 남쪽에 위치한 도시입니다. 상하이 옆에 있어서 고속기차 타면 1시간 안에 갈 수 있습니다. 여름에는 엄청 덥고, 겨울에는 아무리 추워도 한국의 늦가을, 초겨울 날씨입니다. 하지만 일교차가 커서 밤에는 춥습니다. 그리고 원래 날씨가 따뜻한 도시이다 보니 난방시설이 갖추어 있지 않습니다. 겨울에는 추울 수 있을 거 같습니다. 모기가 많습니다. 그리고 비가 너무 자주 옵니다. 일주일 내내 올 때도 있습니다.

학교 위치는 항저우 안에서 촌에 가깝습니다. 주변에 식당, 산, 쾌적한 공기, 자취방 등 순천향대학교랑 똑같습니다. 중심으로 가려면 버스타고 1시간이상 가야합니다. 아직 지하철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항저우는 제가 듣기로 부자도시라고 합니다. 확실히 중심지로 가면 발전이 많이 되어있었습니다. 하지만 외곽으로 가면 공사가 한창 진행 중인 곳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발전중인 도시입니다.

학교 주변 편의시설로는 걸어서 5~10분정도 가면 houjie라는 음식점이 많은 거리가 나옵니다. 이곳에는 모든 식당이 있습니다. 한국식당 1곳 있습니다.(완전 한국 맛은 아닙니다. 추천요리는 치킨입니다.) 한국음식은 배달 시켜 드시기를 추천합니다. 그리고 학교 문 앞으로 밥시간만 되면 오는 푸드 오토바이?가 있는데 이곳에서 전병, 볶음밥, 만두 등을 사먹을 수 있습니다. 학생식당은 줄이 너무 길어서 저도 이곳에서 자주 사먹었습니다. 비용은 저렴해서 보통 한 끼에 10~15위안 안에 해결됩니다. 쇼핑이나 프랜차이즈 식당을 가고 싶다면 제일 가까운 곳이 학교에서 버스나 자전거를 타고 20분 정도 가면 liuxia라고 하는 동네가 나오는데 이곳에 큰 백화점과 마트, 카페, 유명 패스트푸드점 등이 있습니다.

교통편은 가까운 곳을 갈 때는 보통 자전거를 탑니다. 멀리 나갈 때는 버스나 택시를 이용합니다. 버스는 2~3위안입니다. 하지만 중심지를 가려면 보통 2번 갈아타야합니다. 교통카드를 사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환승 됩니다. 지하철은 중심지 주변에만 있습니다. 저장외대까지는 3년 안에 연결 된다고 들었습니다.

항저우는 중국내에서도 유명한 관광지라고 합니다. 그 말처럼 정말 아름다운 도시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서호라고 하는 큰 호수를 중심으로 도시가 발전되어있습니다. 서호까지는 학교에서 1시간 30분 정도 걸리는데 학교 셔틀버스를 이용하여 이사 오기 전에 저장외대가 있던 곳 까지 태워줍니다. 그곳은 중심지랑 가까운 곳입니다. 그곳에서 자전거나 버스를 타고 서호를 가면 됩니다. 서호주변으로 쇼핑몰과 대한민국임시정부, 관광지 등이 있습니다. 서호를 가면 항저우의 아름다움을 볼 수 있습니다. 다른 명소로는 숭정, 시시습지 등이 있습니다.

대학 현황 보고서

■ 기숙사 정보

비 용	755,000원	내부구조	2인 1실
기숙사 규정 사항	주인의 받았던 부분이 없어서 잘 모르겠습니다. 크게 사고 안치면 됩니다. 학교 교문 및 기숙사는 늦은 밤에 학생증이 있어야 들어올 수 있습니다. 낮에도 기숙사를 들어 올 때는 학생증으로 찍어야 문이 열립니다.(들어오고 나갈 때 모두)		
주인사항	이곳 날씨 특성상 모기가 많습니다. 도미뱀이랑 지네도 나왔습니다. 물이랑 전기는 충전해서 써야합니다. 캐리어를 들고 교문을 나갈 때는 확인증이 필요합니다.(기숙사 사무실에서 발급) 새벽에 교문을 나갈 때도 확인증이 필요합니다.(국제교류처에서 발급)		

■ 기숙사 내부 사진 설명

	방에는 침대, 책상, 옷장이 있습니다.
	베란다도 있습니다.
	침구류는 없습니다.
	기숙사 내에서 180위안 정도에 살 수 있습니다.
	(침대보, 베개, 이불, 얇은 쿠션)
	정수기(보증금 60위안)를 대여할 수 있습니다.
	물은 한통에 11위안입니다.
	정수기가 많지 않기 때문에 빨리 대여하세요!

대학 현황 보고서

■ 기숙사 내부 사진 설명



세면대에서 따뜻한 물이 안 나와요.

수압은 좋습니다.



사진에 보이는 네모난 기계에 학생증을 꽂으면
따뜻한 물이 나옵니다.

샤워 한번 하는데 보통 5위안 정도 사용됩니다.

충전은 관리실에서 20위안씩 가능합니다.

학생중에 위챗이나 교환소를 찾아가서
돈을 충전한 다음에 기숙사 관리실에서
뜨거운 물 충전으로 교환하시면 됩니다.

새벽 2시쯤에 뜨거운 물 안 나옵니다.



층마다 냉장고 및 전자레인지 있습니다.

4층에 부엌이 있지만 이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시설이 좋지는 않습니다.

대학 현황 보고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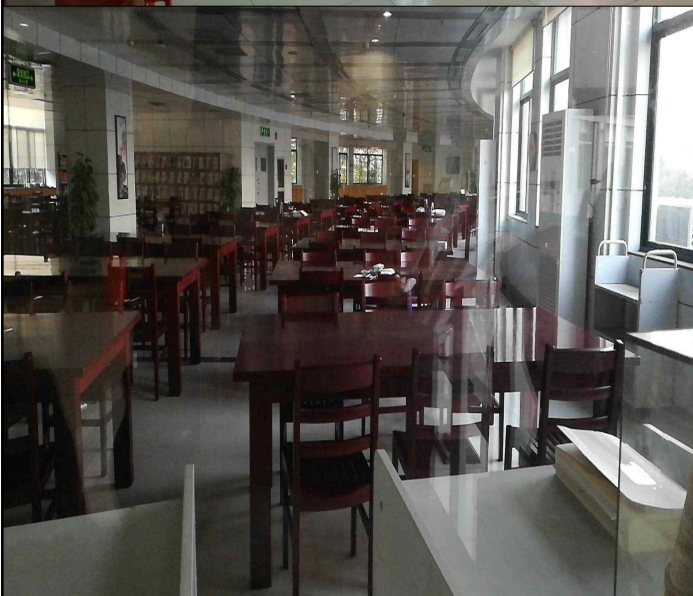
■ 기타 시설 (도서관, 강의실, 식당, 세탁실 등)



기숙사 한 건물에 2개의 세탁기 있습니다.
한 대는 건조기입니다.
한번 빨래 할 때 4위안이 필요합니다.
중간에 있는 세탁기가 제일 좋습니다.



한 건물 전체가 식당입니다.
사진 속 식당은 3층입니다.
뷔페처럼 음식을 선택해서 개수로 가격을 측정
하는 가게도 있고, 마라상귀 가게, 국수 가게가
있습니다. 한 끼에 보통 10~15위안입니다.
1층 식당은 기름기가 적습니다.



도서관은 1, 2층에 자습실이 있습니다.
칸막이도 없고, 정해진 좌석도 없습니다.
그냥 앉아서 공부하시면 됩니다.
1층은 24시간 개방되어있고, 2층은 8시쯤에
닫습니다. 2층은 들어갈 때 가방은 모두 밖에
놔두고 들어 가야합니다.
(책을 빌릴 수 있는 곳이기도 해서 누가 훔쳐
갈까봐 그렇게 해야 한다고 합니다.)

교환학생 파견 수기

※ 아래 내용을 포함하여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1. 교환학생 프로그램 참여 후 느낀점 혹은 소감
2. 수업 외 활동 내용(여행, 교내 외 각종 활동했던 경험)
3. 프로그램에 대한 기타의견 등

원래 순천향대 공자아카데미 교환학생 장학생을 준비하였는데, 갑자기 순천향대 공자아카데미에서 교환학생을 뽑지 않는다는 공지를 해서 중국 교환학생에 대해 목표를 잃고 실망을 하고 있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이렇게라도 가지라는 마음으로 큰 기대 없이 교환학생 프로그램에 참가했습니다. 하지만 저장외대의 만족도는 120%였습니다. 첫 파견이라 아무 정보 없이 가서 처음에는 힘들었지만, 생활하면서 이곳의 매력을 많이 느꼈습니다. 학교 주변에는 한국인이 아예 없다고 생각해도 됩니다. 그래서 어딜 가나 한국어로 말하는 우리를 늘 쳐다보고 신기해합니다. 그리고 다들 엄청 착하고 한국인에 대한 호감도가 높습니다. 한국드라마를 보고 한국연예인을 좋아합니다. 그러다 보니 많은 학생들이 저희와 친구가 되고 싶어 합니다. 한국인으로서 부끄럽고, 고맙습니다. 저장외대 안에는 순천향대에서 온 저를 포함한 3명과 다른 학교에서 온 3명을 합쳐 총 6명만 한국학생이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어과가 있어서 한국인 선생님들도 계시고, 한국어를 잘 하는 학생도 있으니, 도움 받을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한국인이 너무 없어서 안 좋다고 생각했는데, 이 부분은 최고의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중국어를 어쩔 수 없이 더 많이 쓰게 되고, 중국인 친구들을 많이 사귈 수 있습니다. 저장대학교라는 곳이 있는데, 그곳 주변만 가면 한국인이 엄청나게 많고 한국 식당도 많습니다. 한국이 그리우면 거기 가서 한식 먹으면 됩니다.

한 학기를 통해 중국어가 엄청나게 늘었다고는 말 할 수 없지만, 항저우에 와서 한국에서 쌓였던 많은 고민과 스트레스도 날리고, 즐겁게 생활할 수 있었습니다. 저에게는 값진 경험이었습니다. 그리고 저의 중국어 실력이 많이 부족하다는 것을 느끼고 더 열심히 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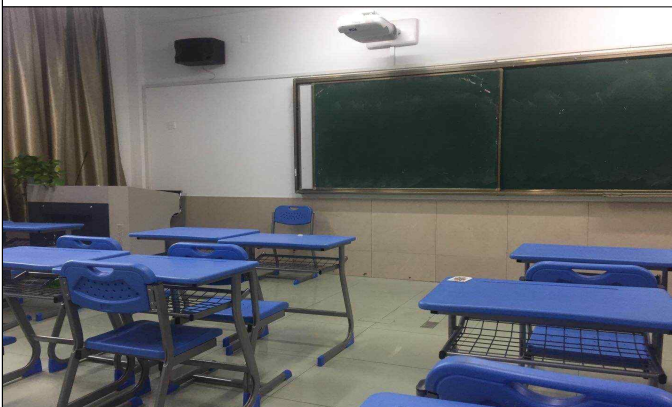
학교 측에서도 다양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좋았습니다. 중국옷체험, 항저우 관광지투어, 영화시청,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었고 저희들의 건의사항을 최대한 들어주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저는 여행을 좋아하기 때문에 여행도 많이 다녀왔습니다. 그러다보니 비용이 많이 들긴 했지만 언제 이런 경험을 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에 이곳에서 필름카메라도 사고 가까운 상하이도 3번 다녀왔습니다. 항저우 내에도 많은 관광지가 있습니다. 특히 서호는 제가 생각하기에 최고의 관광지였습니다. 보기만 해도 힐링이 되는 곳이었습니다. 지금 보고서를 쓰고 있는 시점에서 기말고사가 끝나 한국으로 돌아가기 전 시간이 남았습니다. 여행을 떠나기 위해 준비 중에 있습니다. 꼭 다양한 곳을 다녀보시기를 추천합니다.

교환학생 프로그램에서 조금 아쉬운 점이 있었다면, 이곳에 온 다른 학교는 모두 저장외대에 직접 기숙사비를 내고, 건강검진도 이곳에서 받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20만원정도 차이가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돈에 대해서는 민감할 수밖에 없다보니 왜 이렇게 규정을 만들었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았습니다. 하지만 다른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 학교가 더 체계적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벌써 한국으로 돌아갈 달이 되어 이렇게 결과 보고서를 쓰면서 이곳 생활을 돌아해보면 행복하고, 더 지내지 못한다는 게 아쉽습니다. 그만큼 이곳 생활이 좋았기 때문입니다. 혹시나 정보가 없어서 고민하고 있는 학생들이 있다면 익숙한 곳 보단 새로운 곳에서 생활해보는 것도 좋다고 추천합니다. 정보가 많으면 많을수록 한국인은 더 많습니다. 진짜 중국을 느끼고 싶다면 이렇게 도전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곳은 다른 학교보다 개강 시기가 늦기 때문에 저는 아르바이트를 통해 직접 생활비를 벌었는데, 그렇게 해서 중국에 오니 더 의미 있는 생활을 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교실입니다.



푸드 오토바이입니다.(만두집과 전병집 그리고 모자 쓴 젊은 아저씨와 운영하는 볶음밥집을 추천합니다.)

